



버스정류장 내 도착안내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작은 규모로 설치돼 있다.



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국 글라스고 뷰캐넌거리의 청동부조.



네덜란드 라이덴의 가로 표정. 차량, 가로등, 거리카페, 풍차, 자전거 거치대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4〉 유럽편 '도시와 가로시설물'

표지판·휴지통도 예술품... 도시는 '거대한 갤러리'

도시민이나 외국인들에게 도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이 가로시설물이다. 가로등,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벤치 등 편의시설이나 변압기, 전신주 등 필수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시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시 서비스'다.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은 과거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했던 가로시설물에 색채나 조명,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광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각 도시가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짧은 시간 내에 도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도시 내 구역·공간·가로 등의 개성 과는 상관 없는 일률적인 디자인이나 가로시설물이 가진 고유 기능을 넘어서는 '과도한 디자인·조명·색채' 등이 그것이다.

장소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똑같은 색과 디자인으로 들어선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가로등은 전자, 도심 일대 광주천 다리 위에 형형색색으로 들어선 시설물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태양열 시설, 기능에 비해 볼체만 큰 버스도착시스템 등은 후자의 사례다.

유럽도시들의 가로시설물들은 우선 그 기능적인 측면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 최소화 ▲장소에 따라 다른 디자인 도입 ▲주변 조화·융통성 감안한 복합 시스템 등의 공통점이 있다. 특히 역 앞 광장,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 대표 골목길 등에는 그 특징을 감안한 디자인으로 장소성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신호등 주변에 쓰레기통, 도로표지판 등이 함께 설치돼 있다. 버스정류장은 작은 규모로 유리 벽면은 상업광고가 차지하며, 정류장 내부 상판에 가로 50cm, 세로 20cm 정도 크기의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규모는 작고 버스번호, 종착지, 도착까지 남은 시간 등 필수 정보를 전달할 뿐이다. 나무기둥에 매달려 있는 거리 안내판도 외국인에게 간결하고 깨끗한 인상을 준다. 글라스고 뷰캐넌거리에는 거리 중앙에 건축물을 축소해 놓은 청동부조가 있으며, 거리 양 측면에 설치된 차량진입량, 점포주의 차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보행자를 최우선 하는 에든버러는 오전 6시30분~10시30분까지만 차량이 나오바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에서는 도시의 상징은 풍

절제된 외형에 기능 집약...보행자 배려 장소·주변 감안한 디자인 도시문화 상징 형형색색 과도한 광주 경관 개선 필요

차가 가로시설물이며, 4면이 유리로 구성된 버스정류장에는 노선표와 상업광고가 각각 장식하고 있다. 공사중인 암스테르담 중앙역 인근은 그 일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이를 설명하는 글 등이 가로막이 되고 있으며, 공원의 휴지통은 색채를 녹색으로 할 뿐 별다른 디자인 요소를 주입하지 않았다.

프랑스 메츠빌 역 앞의 심미성 높은 가로시설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가로등, 공중전화 박스,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등이 유리와 철 등만으로 다른 도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이들 가로시설물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고, 도시문화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대도시답게 다소 복잡한 도시경관을 갖고 있는 파리의 버스정류장은 버스 노선별로 색색의 표지판을 정류장 상층부에 두

고, 내부는 노선표, 상업광고, 벤치로 구성했다. 원칙이라면 이들 가로시설물들이 보도를 걷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또 가로 중간 중간에는 광장이 있고, 광장에는 분수대가 있으며, 가로시설물이 그 주변을 장식하는 유럽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독일 도시들의 차량 진입 금지시설은 다른 도시에 비해 다소 크고 굵었지만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들에게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었으며, 공중전화 박스와 정류장 등의 디자인이 이채로웠다. 특히 가로 곳곳에 설치된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안내판은 녹색, 보라색, 주황색 등을 사용해 외국인 찾기가 쉬운 장소에, 중요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기가 높았다.



한 곳에 집적된 신호등·휴지통·표지판.



프랑스 메츠빌 역 앞 광장의 공중전화 박스.

중흥건설
2011년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

광주최초

단지내 실내수영장을 갖춘 명품 아파트를 만납니다

하남2지구 중흥S-클래스

검색 하남2지구 중흥S-클래스

총 청약접수 7,490건
최대청약 경쟁률 13.15:1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계약기간 : 7월 25일(월) ~ 7월 27일(수)
· 계약장소 :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

중도금 무이자

초기 계약금 5%

25m4레인 수영장

4-Bay 특급설계

전세대 84㎡구성

단지내 상가분양(상담접수)

84㎡(A, B, C) 총801세대 대단지

분양문의 062) 364-0001

상무지구와 통하는 생활특권!
801세대 대단지의 주거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지구 ○ 광주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 화정동 삼익맨션 ○ 공황방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암동 ○ 고원공제회관 ○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 ○ 메리트 웨딩홀 ○ 농성역 ○ 월산동 외곽도로
--	--

84㎡(A, B, C) 총801세대 대단지

분양문의 062) 364-0001